

2026/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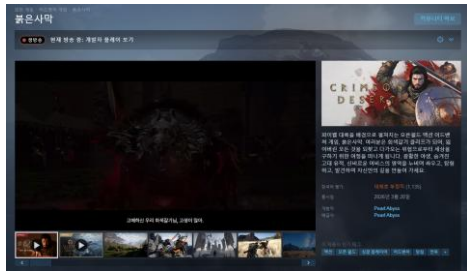
작성자: 이정훈 (게임소프트웨어전공 4학년)

붉은사막 CRIMSON DESERT



▲ '붉은 사막' 메인 이미지. [사진=붉은 사막 X 공식 홈페이지]

붉은 사막, 정식 출시 후 흥행 속 엇갈린 반응... 그 이유는?



▲ '붉은 사막' 스팀 페이지. [사진=스팀 상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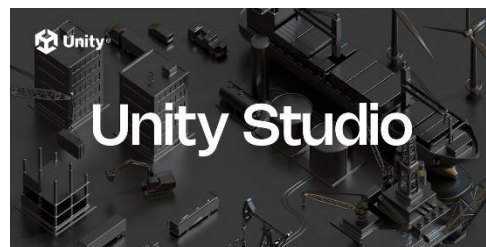
펄어비스에서 7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 사막'이 기대 속에 오늘 20일 정식 출시했다. 정식 출시 직후 스팀 판매량 1위와 동시 접속자 수 상위권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지만, 플레이한 유저들의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자체 개발한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사용하여 날씨 변화와 광원 효과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최적화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약 400km² 규모의 넓은 지형을 이동하며 보이는 맵 비주얼과 맵을 따라 콘텐츠를 진행하는 탐험 중심 플레이 경험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 게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잡기, 발차기, 원소 공격에 더해 무기별 콤보의 존재로 인해 설계할 수 있는 전투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조작해야 할 버튼이 많아지면서 복잡한 조작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 가능한 요소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깊이가 낮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출시 첫날부터 '붉은 사막'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펄어비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직관적인 웹 기반 에디터 'Unity Studio' 출시



▲ 'Unity Studio' 대표 이미지. [사진=유니티 스퀘어 뉴스 페이지]

유니티가 'Unity Studio'를 지난 19일 정식 출시했다. 'Unity Studio'는 별도의 코딩이나 복잡한 개발 절차 없이도 인터랙티브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기반 협업 도구이다.

유니티에서 강조한 것은 접근성이다. 사용자는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3D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와 제품 데모, 교육용 씬, 튜토리얼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직관적인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통해 관련 지식이 없는 비개발 인력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CAD, BIM 등 다양한 3D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며 기존 'Unity Asset Manager'가 같은 생태계 내로 통합된다. 따라서 3D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임포트하고,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빠른 피드백 환경을 제공한다.

유니티의 또 다른 협업 도구인 'Unity Teams'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버전 관리와 프로젝트 동기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Unity Studio'는 실시간 제작 및 공유를 통한 직관적인 협업에 초점을 두었다.

에픽게임즈, 언리얼 엔진 무료 웨비나 '시작해요 언리얼 2026' 진행



▲ 시작해요 언리얼 2026 대표 이미지. [사진=에픽 라운지 페이지]

에픽게임즈에서 지난 19일부터 언리얼 엔진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웨비나인 '시작해요 언리얼 2026'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웨비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를 뜻한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시즌에 배경 제작의 3단계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4주 만에 리얼타임 3D 시네마틱 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1주 차는 블록아웃 기법을 이용해 월드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2주 차는 언리얼 엔진의 툴을 활용해 공간의 무게감을 설계한다. 3주 차는 물리 기반 라이팅을 통해 환경을 설계하고 포스트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4주 차는 새로운 테마에 배경 제작 파이프라인을 적용하여 완성한다.

'시작해요 언리얼 2026'은 오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에픽 라운지 채널에서 진행된다. 추가로, 라이브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강연 영상을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워크플로와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 제작 경험을 영상 시청과 실습만으로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